

다니엘서 - 번호 71

예언의 태피스트리: 에스겔 8장의 네 가지 가증한 일의 조명과 현대 시대에서의 의의

Jeff Pippenger
2024-02-04

에스겔 8장의 네 가지 가증한 일은 현대 이스라엘의 네 세대를 상징하며, 현대 이스라엘의 시작은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예표되었습니다. 그 두 시작의 역사는 곧 임할 일요일법 때에 현대 이스라엘의 종말을 증언합니다. 고대의 문자적 이스라엘과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 이 두 시작은 이스라엘 북왕국이 유다와 분리되던 때의 초기 역사에 의해 증거됩니다.

옛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왕국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신 예언이 성취되어 막 이집트에서 나온 참이었다. 이스라엘 북왕국의 첫 왕 여로보암의 이야기에다 바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분노를 피해 이집트로 도망쳤다. 그는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열두 지파 중 열 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적 약속을 받았다. 그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솔로몬을 피하여 이집트로 도망쳤다.

그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붙잡아 그것을 열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찢어 네게 열 지파를 주겠다. (그러나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택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에게 한 지파를 주겠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옳은 일을 행하고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의 손에서 온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겠다. 그의 생전의 모든 날 동안 그를 통치자로 삼으리니, 이는 내 종 다윗을 위함이라. 내가 그를 택하였고, 그가 내 명령과 내 율례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네게 주되, 열 지파를 주겠다. 또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앞에 내 종 다윗에게 항상 등불이 있게 하겠다.

내가 너를 취하여 네 마음이 원하는 모든 대로 다스리게 하고, 네가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리라. 네가 만일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여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지키되, 내 종 다윗이 한 것 같이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네게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였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의 왕 시삭에게 이르렀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었다. 솔로몬의 그 밖의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가 솔로몬의

행적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사십 년이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열왕기상 11:28-43.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 왕국은 분열될 것이었고 여로보암은 북쪽의 열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었으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것이었다. 지파들의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나와야 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모였음이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일을 들었을 때에(그는 솔로몬 왕 앞에서 도망하였고 여로보암이 애굽에 거하고 있었더라),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니,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사오니, 이제 왕은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가혹한 부역과 우리에게 메운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삼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매, 백성이 떠나니라. 열왕기상 12:1-5.

사할 동안 르호보암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를 전하는 이야기는 그가 장로들의 권고를 어리석게 거부한 데 책임을 돌리지만, 지파들의 분열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으므로 어찌 되었든 일어났을 것이다. 나중 글을 위해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분리 과정이 특별히 사할로 특정되었다는 것이다. 두 왕국은 밀러주의자들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하나의 왕국이 되며, 그 밀러주의자들의 역사, 곧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가 도래하는 기간 동안 북왕국과 남왕국의 지파들은 하나의 왕국으로 합해진다. 밀러주의자들의 역사 속 그 세 천사는 르호보암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었던 사할로 예표되었다. 세 천사가 도래한 1798년부터 1844년까지의 그 46년은, 요한복음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는 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상징적 사할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연구의 그 부분은 추후 글에서 다룰 것이다.

르호보암이 사할 끝에 어리석은 선언을 하자 왕국들이 분열되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에게서 무슨 분깃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기업도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였고, 이스라엘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다스렸다. 그때 르호보암 왕이 조공을 맡은 자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므로 르호보암 왕이 급히 병거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회중에게 불러 오게 하여,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는 오직 유다 지파뿐이었다. 열왕기상 12:16-20.

여로보암에게 왕국이 주어질 것이라는 예언은 성취되었고, 그것은 그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도시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시기하여, 여로보암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행하도록 명해진 성소와 제사장직과 예배를 모조하여 가짜로 세우는 일에 착수했다. 북쪽 열 지파 가운데 가짜 예배 체계를 세운 여로보암의 행위는 아론과 금송아지의 반역과 직접적으로

상응하며, 그러므로 머지않아 다가올 주일법뿐만 아니라 1863년의 반역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증거를 제공한다.

여로보암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이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다시 그들의 주 곧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왕이 의논하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수고롭도다. 이스라엘아, 보라,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엘에 세우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그 하나에게 경배하러 단까지 갔음이라. 그가 또 산당의 집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 가장 비천한 자들로 제사장들을 삼았더라. 여로보암이 또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닷셋날에 유다에 있는 절기와 같은 절기를 정하고 제단 위에 제사를 드렸으니, 베엘에서도 그와 같이 하여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고, 또 자기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엘에 두었더라.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닷셋날에 베엘에 자기가 만든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여 제단 위에 올라가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상 12:26-33.

여로보암의 반역은 아론의 반역, 1863년의 개신교 뿔의 반역, 그리고 곧 임할 일요일 법령 때의 공화주의 뿔의 반역과 겹쳐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의 줄기를 제공하며, 이로써 예언적 증언을 확장한다. 아론의 금송아지 반역 가운데 주께서는 정하신 제사장 선발 방법을 바꾸셨다.

반역 이전에는 각 지파의 장자가 제사장직의 일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론의 금송아지 반역 때에는 모세의 편에 선 것은 레위 지파뿐이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직에 사람을 충원하는 제정하신 방법을 바꾸셨고, 그때부터 제사장직은 오직 레위의 가문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모세가 백성이 벌거벗은 것을 보니(이는 아론이 그들을 벌거벗겨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중의 문에 서서 이르되,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누구냐? 내게로 나오라." 하니, 레위 자손이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각 사람은 칼을 허리에 차고 진중을 두루 다니며 문에서 문까지 드나들며, 각각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친구와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 그 날 백성 중에서 약 삼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출애굽기 32:25-28.

여로보암은 아론의 반역 사건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새로운 제사장직을 세우심으로 이루신 일을 왜곡하여 모방했다. 이는 여로보암이 "레위의 자손이 아닌 백성 중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북방 열 지파 왕국이 시작될 때의 반역은 아론과 춤추던 어리석은 자들의 반역과 유사하다. 그 반역은 애굽에서 나온 뒤,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일어났다. 두 경우 모두 제사장을 정하는 이전의 규례와는 다른 새로운 제사장직이 세워졌다.

아론의 금송아지 반역은 반복되었지만, 여로보암에 의해 두 배로 확대되었다. 그는 금송아지를 둘 만들어 두 성읍에 두었기 때문이다. 단 성읍은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의 이름처럼 통치술을, 베엘 성읍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처럼 교회 운영을 상징한다.

그 금송아지들은 아론의 송아지와 같은 상징성을 지녔지만, 두 성읍이 나타내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라는 증거가 더해졌다. 송아지는 이방 제물 가운데 가장 높은 형태였으므로 그리스도를 모방한 가짜 제물을 의미한다. 금은 바벨론의 상징이며, 송아지는 짐승의 형상이었다. 아론이 거짓된 예배의 날을 제정했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절기를 정하고, 그 절기의 날짜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의 때와 일치하지 않도록 했다.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의 모든 요소는 여로보암의 반역의 증거 속에 나타나 있으니, 거짓 희생 제물(송아지), 거짓 그리스도(제단), 짐승의 우상(교회와 국가의 결합), 거짓 예배일(일요일), 그리고 거짓 제사장직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 북방 열 지파 왕국의 시작, 그리고 재림운동의 시작은 모두 동일한 예언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은 함께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의 예언적 요소들을 식별하게 한다. 고대 이스라엘은 애굽의 속박에서 나왔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박해를 피하여 도피했던 애굽에서 나왔으며, 밀러주의 재림운동은 막 교황권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레위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역 때 확립되었고, 가장 비천한 자들의 가짜 제사장직은 여로보암의 증언 가운데 세워졌으며, 주께서 밀러파 재림운동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베드로에 따르면 밀러파는 “택하신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특별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그의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이의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밀러파가 부름받은 그 빛은 하박국의 두 판 위에 나타난 밀러의 보석들의 빛이었고, 그것은 아론의 반역의 역사 속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으로 예표되었다. 그들이 불러내심을 받은 어둠은 교황 지배의 암흑기였으며, 그것은 이집트의 속박이라는 어둠으로 예표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교와 교황주의에 의해 짓밟힌 성전을 1798년부터 1844년까지 46년에 걸쳐 일으키셨다. 성전을 세우신 후, 언약의 사자로서 1844년 10월 22일에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셨으니, 이는 그분이 짓밟혀 파괴된 성전을 세우셨을 뿐 아니라 레위 지파로 대표되는 제사장 직분도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오시는 날을 누가 감당하겠으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설 수 있겠는가? 그는 제련하는 자의 불 같고, 빨래하는 자의 잿물과 같기 때문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고 깨끗하게 하는 자로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정결하게 하여, 금과 은처럼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주께 의로 제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물이 옛날과 이전 해들과 같이 주께 기쁨이 되리라. 말라기 3:2-4.

1844년 10월 22일, 그리스도께서는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셔서 레위 제사장 직분으로 대표되던 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나 1863년까지 그들은 아론의 반역을 되풀이하였고, 밀러주의 제사장직은 라오디게아 제사장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백성 중 가장 낮은 자들로 이루어진 여로보암의 제사장직과 아론의 춤추는 어리석은 자들로 표현된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반역에 대한 증언은 1863년의 반역에 대해 더 큰 증거를 제공한다. 여로보암이 그의 거짓 예배 체제를 출범시켰을 때, 그의 반역을 꾸짖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온 한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는 십계명의 안식일을 쉼의 날로 받아들이도록 인도된 밀러주의 재림운동으로 예표되었다.

재림교회가 셋째 천사의 기별과 성소의 빛을 받아들였을 때, 이는 1798년에 시작된 마지막 때의 봉함이 풀림으로 주어진 점점 더 밝아지는 빛을 거절한 개신교인들에게 책망이 되었다. 고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속박 중에 안식일을 잊었듯이, 광야의 교회도 1798년에 이르렀을 때에는 안식일을 잊고 있었다. 밀러주의자들이 전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의 점점 밝아지는 빛은 마침내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도했다.

그 빛은 1844년 10월 22일에 도착했으며, 가톨릭교의 거짓 교리에서 완전히 나오도록 부름받은 이들에게 거짓 예배에 대한 책망을 나타냈다. 태양 숭배는 그녀의 품으로 돌아간 교회들에 대한 가톨릭교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징이다. 그 책망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거짓 예배 체제를 도입할 때 표상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여덟째 달 그 달 열닷새에 유다에 있는 절기와 같은 절기를 제정하고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는 벳엘에서도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을 드렸고, 그가 만든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벳엘에 세웠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벳엘에 만든 그 제단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닷새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제정하였으며, 제단 위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다. 보라,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벳엘에 이르렀고,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다. 그가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그 제단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의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가 네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드릴 것이며, 사람의 뼈가 네 위에서 불사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바로 그 날에 표징을 주며 이르되,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표징이니라. 보라,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의 재가 쏟아지리라. 벳엘에서 그 제단을 향하여 외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여로보암 왕이 들었을 때, 그는 제단 곁에서 손을 내밀어 이르되, 그를 잡으라 하였다.

그가 그를 향하여 내밀었던 손이 말라 다시 자기에게로 거두어들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단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주었던 표징대로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얼굴을 간구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 손이 다시 내게 회복되게 하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기운을 차리라. 내가 네게 상을 주리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르되, 네가 네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이같이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을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 말며 네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그리하여 그는 다른 길로 갔고, 베델로 오던 그 길로는 돌아가지 않았다. 열왕기상 12:32-13:10.

아론과 여로보암의 증언에 나타난 금송아지 반역과 더불어, 여로보암이 제정한 거짓 예배 체계의 실제적인 출범도 그의 증언에 포함되어 있다. 그 출범은 예루살렘에서 시행되어야 했던 예배와 여로보암의 거짓 체계 사이의 구분을 보여 준다. 1798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동안, 주님께서서는 그의 백성을 교황 지배의 어둠에서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가 상징하는 놀라운 예언의 빛으로 이끌어 내셨다. 개신교 교회들은 그 빛을 거절했고, 그로 말미암아 1844년에 가톨릭의 딸들이 되었다.

여로보암의 예배는 가톨릭의 예배 체제를 예표했으며, 그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북왕국은 밀러주의 운동의 역사 속 개신교도들이 그 안에 머물기를 선택했던 가톨릭의 거짓 체제를 대표한다. 그 체제의 상징은 태양 숭배이다.

1844년 10월 22일 지성소에 들어간 신실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가톨릭의 영향력 아래로 다시 돌아가 로마의 딸들이 된 개신교도들에 대한 책망을 상징했다. 여로보암의 거짓 예배 체제가 출범할 때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을 책망했는데, 이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인식하도록 인도된 신실한 처녀들을 예표한 것이었다. 그 선지자와 그의 여로보암에 대한 책망의 이야기는 1863년의 반역을 고려할 때 큰 시사를 주지만, 그 이야기는 시작과 결말이 함께 마련될 때까지 미루어야 한다.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 여로보암의 왕국의 시작,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의 시작은 서로 일치하며,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의 때에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종말에 대한 세 가지 증거를 함께 제시한다. 1844년 10월 22일, 밀러주의 재림운동의 신실한 무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참된 개신교 뿌리 되었으며, 그들은 1798년 '끝의 때'에 시작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었다. 1798년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인 미국의 시작이자, 미국에서 재림주의의 참된 개신교 뿌리 수립된 때였다. 그 시작의 역사는 미국의 마지막 역사를 대표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시작의 세 증인인 고대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그리고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은 땅의 짐승의 종말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다에서 와서 여로보암을 꾸짖은 선지자의 증언을 제시하기에 앞서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할 또 다른 결말이 있다. 포함되어야 할 그 결말의 역사는 에스겔 선지자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의 종말이다.

우리가 지금 보여 주고 있는 바, 즉 1863년의 반역이 에스겔 8장의 첫 번째 가증한 것, 곧 질투의 형상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에스겔이 묘사한 대로 북왕국과 남왕국의 종말을 다루고 나면, 우리는 1863년의 반역이 아론과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예증되었고, 또 그것이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의 네 세대 가운데 첫째 세대의 시작을 가리킨다는 주장을 지지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여호와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요셉, 곧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라.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이어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그것들이 하나가 되리라. 네 백성의 자손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보여 주지 않겠느냐?' 하거든,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 곧 그와 함께한 것과 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또 네가 그 위에 쓴 그 막대기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네 손에 있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이 가 있는 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취하여 사방에서 모으고, 그들을 그들의 본토로 데려가리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산들 위 그 땅에서 한 나라로 만들고, 한 왕이 다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나라가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우상들과 그 가증한 것들과 그 모든 범죄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들이 죄를 지었던 그들의 모든 거처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며,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은 또한 내 규례를 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리라. 그들이 너희 조상들이 거주하던,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그 땅에 거주할 것이며, 그들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거기 거주하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방백이 되리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니, 이것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요,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영원히 두리라. 내 처소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때에, 이방 나라들이 나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줄 알리라. 에스겔 37:15-28.